「경영사학」 제30집 제3호(통권 75호)
(사)한국경영사학회
2015. 9. 30. pp. 85~113

논문접수일 : 2015년 07월 20일
최종수정일 : 2015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8월 19일

1920~30년대 가정회계와 가계부 담론*

한 형 성**

요 약

본 연구는 1920~30년대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을 분석하여, 이 담론이 한국가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1920~30년대 일제와 계몽지식인이 생산, 유통한 가계부 관련 담론은 중층적 역할을 했다. 일제는 가정경제의 유지와 재생산의 어려움을 개별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식민지 수탈을 은폐하거나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적 통치기제로 가계부 관련 담론을 이용했다. 또한 가계부 관련 담론은 문맹타파, 농가경영의 합리화, 그리고 한국가정을 근대적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몽적 의도에서도 생산, 유통되었다. 가계부 작성능력이 문맹타파의 성과지표로 해석되었고 농가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회계 지식이 강조되었다. 계몽지식인은 한국가정을 근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계부를 이용한 '가사의 과학화'를 주장했으며, 가정회계를 근대적 주부와 근대적 가정질서를 만들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1920~30년대의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은 일제의 식민지수탈체제 유지를 위한 통치이데올로기가 가정에 관철된 것인 동시에 근대적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식인의 계몽적 열망이 중첩된 것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이 1920~30년대 한국이라는 시, 공간적 배경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 본 최초의 연구라는 점이다. 또한 지금까지 역사학을 비롯한 인문사회분야에서 이루어진 일제 식민지 시기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적극 흡수하여, 그 동안 국내 회계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회계와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의가 있다.

〈주제어〉 1920~30년대, 가정회계, 가계부, 가정경제, 생활세계, 근대가정, 근대주부, 근대담론

* 논문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조언과 건설적 비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조교수, han176411@cau.ac.kr

Ⅰ. 들어가는 글

본 연구는 1920~30년대에 일제와 계몽지식인이 생산, 유통한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이 한국의 가정경제에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가 1920~30년대를 시대배경으로 하여 가계부 관련 담론을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1920~30년대는 서구의 근대적 회계개념과 회계행위가 한국에 도입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 분석은 회계가 한국의 '근대가정' 형성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가계부는 가정이 스스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물이다. 가계부 작성과 관련한 담론 분석은 당대의 가정경제의 운용과 관리와 관련해서 가정 구성원 사이의 역할과 회계책임이 어떠했는지를 밝히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홉우드(Hopwood, 1994)는 오늘날 회계는 일상생활의 많은 분야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계연구자는 연구대상을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장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회계연구는 대부분 기업회계와 같은 공적영역에만 치중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회계연구는 찾기 힘들었다. 본 연구는 가계부 관련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회계학의 연구영역을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일상생활 연구는 지금까지 역사학, 사회학, 여성학 등의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의 가장 중심적 공간인 가정에서 나타나는 가정경제의 운용과 관리와 관련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연구의 연구내용을 확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일상생활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가정회계와 관련한 외국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 Ⅲ장에서는 1920~30년대 한국의 가정경제 상황은 어땠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제 Ⅳ장에서는 1920~30년대 한국의 가정경제에서 가계부 관련 담론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기술할 것이다.

Ⅱ. 가정회계 관련 선행연구

홉우드(Hopewood)는 1994년『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서 회계연구가 가정과 같은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했다.

> 오늘날 수사적 주장의 많은 것들이 회계기법을 이용해서 제시되며, 그것은 상당히 쉽게 승인된다. 점차 회계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조직과 사회적 혹은 경제적 과정의 기능에 기여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기술(technology)로 보인다. 회계는 이제 일상생활의 많은 방면에서 분명히 존재한다(Hopwood, 1994).

홉우드(1994)는 지금까지의 회계연구가 회계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한 문화적, 사회적 담론들에 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회계의 대중적 표현의 변화도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계학과 역사학, 사회학, 민속학, 여성학 등 다른 학문과의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홉우드(Hopewood)의 제안 이후, 외국 회계학계에서는 회계와 일상생활의 관련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특히 가정회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Walker(1998), Komori & Humphrey(2000), Piorkowsky(2000), Northcott & Doolin(2000), Carnegie & Walker(2007), Vogler & Pahl(1994) 등). 가정회계와 일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이유는 가정이야말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지속되는 동시에 재생산되는 중심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회계연구들은 가정경제의 메커니즘, 즉 가정의 부(wealth)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 관리되며, 가정구성원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고 재투자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역할과 회계책임(accountability)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었다. 카네기와 워커(Carnegie & Walker, 2007)는 18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호주(Australia)의 76개 가정에서 이용한 회계방식과 회계절차, 그리고 가정에서의 성역할에 따른 회계책임이 어떠했는지를 미시사적 연구방법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호주가정에서는 가계부를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썼으며, 부부가 공동적인 회계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아내가 가계부를 쓰는 가정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가 쓴 가계부를 '감사(audit)'하거나 최종적으로 남편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례들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피오코스키(Piorkowsky, 2000)는 1994년에 3,043개의 독일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재정관리와 회계책임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커플 사이에 회계책임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여성은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책임이 있었으며, 남성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과 관련한 회계책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카네기와 워커,

피오코스키 등의 선행연구는 가정에서의 부부 사이의 권력관계와 성역할과 관련한 연구에서 가계부 작성과 같은 가정회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가정회계와 관련해서 위에서 열거한 선행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회계가 가정의 유지와 재생산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연구에 그칠 뿐, 가정이 있는 '사회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이 가정 혹은 가정회계와 갖는 관련성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버마스(Habermas, 2006)는 생활세계의 재생산과정에서 '사회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은 생활세계에서의 의사소통행위가 펼쳐지는 차원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라는 '사회적 공간'과 '역사적 시간'에서 체계적 조절매체 기능을 하는 화폐나 권력은 생활세계에서 사람들이 계산 가능한 가치의 크기에 따라 목적합리적으로 처신하도록 행위를 코드화한다고 하였다. 하버마스는 화폐와 권력과 같은 체계 메커니즘이 생활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활세계의 식민화'라 명명하였다.

> 종국에 체계 메커니즘은 합의에 의존한 행위조정이 대체될 수 없는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이 문제가 되는 곳에서도 사회통합의 형식을 밀어낸다. 그러면 생활세계의 부속화(Mediatisierung)는 식민지화(Kolonialisierung)의 형태를 띤다 (하버마스, 2006).

가정은 문화, 사회성, 인격과 같은 생활세계의 요소들이 생활 속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공간, 즉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정은 화폐와 권력 같은 체계적 조절매체들의 영향력이 관철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 분석은 단지 가정에 국한된 분석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가정이 위치한 시, 공간의 체계적 조절매체들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워커(Walker, 1998)와 코모리와 험프리(Komori & Humphrey, 2000)의 연구는 가계부 관련 담론이 당대의 시, 공간적 맥락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워커(Walker, 1998)는 산업자본주의가 급속히 성장했던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왕조시대에 가정회계가 영국 중간계급의 가정생활에서 어떠한 의미와 역할을 했는지를 중산층 독자를 대상으로 발행된 가정관리지침서, 가계부, 소설, 일기, 자서전 등을 이용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 19세기 영국의 중간계급 가정에서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은 여성의 역할을 가정으로 제한시키고 여성소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워커는 당시의 가정회계와 가계부 쓰기를 장려하는 담론이 19세기 영국의 남성지배적인 위계구조를 반영하며, 이러한 담론은 당시 영국가정의 가부장적 질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커의 주장은 여성이 가계부 쓰기

를 통하여 가정경제에 대한 회계책임을 '부여받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여성 지위 향상'이라는 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즉 가정에서 회계책임을 가진 부인은 예산수립과 지출결정에 있어서 권한이 부여되며, 이는 가정의 제반 사안들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부인의 지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19세기 영국 산업자본주의 시기에 부녀노동과 아동노동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1], 가정의 총수입에서 부인과 자녀들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가정의 총수입에서 부녀와 자녀들의 노동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공식화, 문서화하는 기능을 하는 가정회계는 기존의 성인 남성 주도로 운영되어진 가정에서의 가부장적 질서를 약화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을 수도 있다.

코모리와 험프리(Komori & Humphrey, 2000)는 일본가정에서 가계부 작성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가정과 사회의 민주주의적 질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일본의 중앙저축정보위원회가 1954년부터 선정한 모범가계부 수상작들을 연구 자료로 이용하여 전후 50년 동안 일본가정의 가계부 작성방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일본가정은 가계부를 초기에는 단기적인 예산통제를 위해 작성했으나, 차츰 장기적인 인생계획과 관련해 가계부를 이용하였고, 최근에는 가계부 쓰기가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적, 환경적 쟁점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워커(1998)의 결론과는 달리 일본에서의 가계부 작성은 여성이 가정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며, 여성이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과 가사노동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여성들이 보다 확장된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갖게 해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가정회계와 가계부가 '근대가정'의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주된 자료로 이용한 것이 중앙저축정보위원회가 선정한 모범가계부 수상작들이라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중앙저축정보위원회는 저축증진을 위해서 가계부 쓰기를 적극 장려하였기 때문에, 가계부 쓰기의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사례들이 모범가계부로 선정되었을 것이고, 이는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워커(1998), 코모리와 험프리(2000) 등의 선행연구가 가진 의의는 가정회계에 대한 연구가 '가정'이라는 영역에 제한된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위치한

1) 마르크스(2001)의 자본론 제1권 10장의 "표준노동일을위한 투쟁 : 법률에 의한 노동시간의 강제적 제한 (1833~64년의 영국의 공장법)"을 살펴 보면, 영국 산업자본주의 시기에 부녀노동과 아동노동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당대의 시, 공간적 맥락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20~3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시기를 시,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이 일제의 통치이데올로기와 계몽지식인의 가정과 관련한 근대 담론과 맞물려 어떻게 생산, 유통되었는지를 살펴본다.

Ⅲ. 1920~30년대 가정경제

1. 1920~30년대 농민의 가정경제

일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2]과 1920년부터 시작된 산미증식계획[3]을 통해서 농민의 토지경작권을 빼앗고 지주의 토지소유권을 강화시켰다. 조선농민사의 초대중앙이사장이었던 이성환은 당시 농민이 처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조선의 농민은 그 존재가 건전한가? 아니다! 그러치를 못하다. 이제 일천 사백만 농업자의 입으로는 "이 놈의 농사 하다가는 굴머 죽겠다!" 비통의 부르지즘과 "못사러 못사러! 그저 가야하지 가야해! 하다못해 북간도로 가든지 서백리아로 가든지 어떠튼 가야사러!" 하는 비절참절한 부르지즘의 소리가 이염 들리게 되얏다(이성환, 1923).

1930년대 초에 있었던 경제공황은 농민의 경제상황을 더욱 위기로 내몰았다. 이여성과 김세용(1934c)에 따르면, 1926년에는 한국의 세민과 궁민이 전체인구의 11.2 %인 약 216만 명이었지만 1931년에는 전체 인구의 26.8 %인 약 542만 명으로 2배 넘

2)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 (1) 구한국 황실소유 토지와 무신고, 무지주 토지의 국유화를 통한 토지 강탈 (2)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세원 확보 (3)일본인의 조선 정착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농민에게 그간 관습적으로 인정되었던 토지 경작권을 없애고 지주의 토지 소유권만 인정함으로써 조선의 지주계층을 식민지 지배의 협력자로 만들었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 경작권을 빼앗기고 고율의 소작료와 세금을 부담하게 된 농민은 영세소작인, 화전민,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거나 살 길을 찾아 만주, 시베리아, 일본 등지로 떠나야만 했다(신용하,1977).

3) 산미증식계획은 조선의 농업경영구조를 미곡단작(米穀單作)의 구조로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곡단작구조의 고착화는 농민이 쌀농사 이외의 겸업이나 부업을 통한 수입창출기회를 차단시키고, 쌀값의 변동에 따른 농가수지의 변동성을 심화시켰으며, 비료, 의류, 직물로 대표되는 일본 독점자본 상품의 농가침투를 통한 이윤창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산미증식계획의 핵심 사업인 수리조합을 통한 토지개량사업은 중소지주, 자작농, 소작농에게 과도한 수리조합비, 고율의 소작료, 고리대 등의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겨 주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농민은 토지를 헐값에 매각하였으며, 매각되는 토지는 일본인 ·조선인 대지주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지수걸,1984).

게 증가했다. 다음의 기사는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소작농은 물론이고 자작농, 지주까지도 가계수지가 극도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평년에도 소작인이 빗지고 자작농이 몰락한다 함은 총독부 통계가 이미 상세히 보도하는 바다. 그러나 금년 같은 공황 시에는 소작인 자작농은 물론 지주까지가 수지의 불상상(不相償)으로 된다. 최근 식산국의 조사한 조선농가상태를 보면 수리조합 구역 내 중등지 일 단보의 수확고 삼석오두를 표준으로 소작인은 오원육전오리, 자작농은 십오원, 지주는 구원의 각부족(各不足)이라 한다. (동아일보 1931년 3월 10일)

〈표 1〉과 〈표 2〉는 1931년과 1933년에 조선농회에서 조선농가의 제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원을 1년간 주재시키고 날마다 농가를 순회하며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표 1〉 조선농가수지(1931년) (단위: 원)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소득	679	392	297
지출	701	473	327
적자	(21)	(80)	(29)

(출처: 동아일보 1932년 11월 27일 기사 토대로 재작성)

〈표 2〉 조선농가수지(1933년) (단위: 원)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소득	1,117	797	626
지출	1,139	877	656
적자	(22)	(80)	(30)

(출처: 동아일보 1933년 5월 13일의 기사 토대로 재작성)

〈표 1〉과 〈표 2〉에서 자소작농의 농가수지는 1931년에 적자 80원이고 1933년에도 적자 80원으로 자작농, 소작농의 적자와 비교할 때 가장 크다. 〈표 1〉과 〈표 2〉에서 소작농보다 자소작농이 적자폭이 더 큰 이유는 자소작농의 경우에는 자작농의 자격으로 부여되는 세금, 공과금, 인건비, 비료대 등과 소작농의 자격으로 부여되는 소작료가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표 3〉은 1931년 4월 古市賢次가 경상남도 근농공제조합부락의 소작농을 대상으로 하여 소작농의 연평균 농가수지를 조사한 결과로 연평균 가계수지적자는 91원 50전이다. 소작농의 농가수입 105원 대부분은 식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주택비, 의복비 등과 같이 가정의 재생산과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에도 농

가수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소작농 연평균 수지(1931년) (단위: 원)

수입		105.00
지출		196.50
식비	91.00	
관혼상제비	11.50	
의복비	20.00	
비료농구비	22.80	
조세 및 기타부담금	1.20	
주택비	21.00	
기타	29.00	
적자		(91.50)

(출처: 이여성과 김세용,1934a)

농민은 부족한 생활비를 고리대금과 같은 부채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금융조합의 대출이율은 10 %였으며 개인고리대의 경우에는 40 %에 이르렀다. 금융조합은 담보를 가지고 있는 지주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변변한 담보가 없는 소작농의 경우에는 개인고리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강만길, 1987). 총독부 재무국의 고리대금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고리대금업자의 수는 1926년 9월말 현재 4,325명이었으며, 총 대출액은 57,062,000 원이고 이율은 최저 27.6 %에서 최고 42.0 %였다(동아일보 1927년 2월 2일). 아래의 신문기사는 고리대금업이 증가하고 전당포 수가 감소하는 이유가 중산층가정이 경제적으로 몰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조선 내에 대금업자가 근일에 와서 천여호가 격증되고 그 반면에는 전당포가 얼마쯤 감소되엇다 한다.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말함인가. 전당포가 감소한다는 것은 세민(細民)의 생활이 아주 궁(窮)의 극도에 달하야 이제는 전당할 재료까지 업서저 간다는 것을 말함이오 대금업이 자구 증가한다는 것은 중산계급의 몰락이 가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암시함이다. 조선인의 생활로 보아 두 가지가 다가티 무서운 현상이다. 이와 가티 제살을 베어 먹어가며 연명하는 이 무서운 참상을 어디케 하여야 면할 수 잇슬가(동아일보, 1929년 12월 15일).

1920~30년대 농민의 가정경제상황을 요약하면, 농사를 통해서는 가정의 기본적 유지와 재생산이 힘들었으며 빚을 안 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농가경제 파탄의 일차적 원인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과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을 통한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 때문이었다. 1930년대 초의 경제공황은 농가경제의 몰락을 더욱 재촉하였다.

2. 1920~30년대 노동자의 가정경제

〈표 4〉와 〈표 5〉는 1928년 7월 철도업무관계조사위원회가 철도업무와 관련 있는 38개 업종들을 대상으로 민족별로 일일평균임금과 일일평균비용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선인 노동자의 약 26%를 차지하는 미숙련공인 조선인 보통 인부의 경우에는 일일평균임금이 81전으로 가장 낮으며, 월별로도 평균 2원 31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여성과 김세용(1934b)은 〈표 4〉에서 일일평균임금은 38개 업종에 속하는 노동자의 일일평균임금을 더한 뒤에 업종 수로 나누어 계산된 것이므로 노동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저임금노동자가 최대 다수인 조선인 노동자가 받은 실제임금은 훨씬 낮았다고 밝히고 있다.

〈표 4〉 민족별 일일 평균임금과 평균비용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 보통 인부
조사인원 (명)	426	123	64	104
일일평균임금 (원)	2.02	3.25	1.80	0.81
일일평균비용 (원)	1.23	1.81	0.69	0.72
일일평균이익 (원)	0.79	1.44	1.11	0.09
소득대비 소비비율	61.0 %	55.8 %	38.3 %	88.3 %

(출처: 이여성과 김세용, 1934b)

〈표 5〉 민족별 노동자 월별 수지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 보통 인부
조사인원 (명)	426	123	64	104
월 이익 (원)	11.58	22.93	24.90	(2.31)

(출처: 이여성과 김세용, 1934b)

〈표 5〉에서 월 이익은 실업일의 임금이 공제되어 있기 때문에 〈표 4〉의 일일평균이익의 30배 보다 훨씬 낮다. 특히, 조선인 노동자의 월 이익은 11원 58전으로 일본

인, 중국인 노동자들의 월 이익의 약 5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인 노동자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는 1928년 평양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받는 최고임금이 중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인 일일 60전 내외였으며, 노동시장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조선인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실업상태라고 보도하고 있다.

> 방금 공사 중에 잇는 평안수리조합의 공부(工夫)로 여러 달 전부터 채용되어 잇든 조선인 공부 륙백명은 전긔공사의 청부를 마튼 고주(雇主)의 임금제도의 불공평으로 인하야 부득이 쫓겨나 버리를 일코 길거리에 방황하다가 마츰내 조선로동총동맹평양련맹에 전긔 쫏겨난 인부 수명의 대표자가 지난달 삼십일에 눈물겨운 탄원을 하야 (중략) 보고에 의하면 당초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는 조선인 로동자 약 륙백여명과 중국로동자 약 백명이엇는데 조선로동자의 최고임금(最高賃金)을 중국인 로동자의 최뎌임금(最低賃金)을 표준으로 하야 줌으로 중국로동자보다 생활비를 만히 쓰게 되는 조선로동자로서 최고임금을 밧는 사람이라야 중국로동자의 최뎌임금 륙십전내외를 밧게 됨으로 이것으로서는 도뎌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업서서 삭처로 리산하야 지금은 겨우 백여명 내외에 불과하고 중국로동자는 하로에 오륙십명식 모혀 들어 지금은 수백명에 달한다는 바 이것은 조선로동자의 큰 문뎨로서 전긔 로총평양연맹에서 방금 대책을 강구중이더라(동아일보 1928년 5월 6일).

〈표 6〉은 김삭불이라는 노동자가 자기 가정의 수입과 지출항목들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투고한 기사를 이용해 재작성한 것이다. 김삭불은 자신을 “우으로 조부모, 부모 아레로 처자를 합하면 십이인의 가권을 거나리고 더구나 물가 빗산 대구에서 그야말로 죽음 반 삶 반으로 근근히 생명을 이여갈 뿐”인 전매국 직공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표 6〉에서 가정예산의 주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식비 관련 지출이 전체 수입의 60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조나 차조[4]를 주식으로 하여 월 18 원을 지출하며, 반찬값에 매일 평균 10 전씩 계산하여 월 3원을 지출하고 있다. 주거비는 전체 수입의 약 8.6 %로 대구 교외에 위치한 방 3개, 부엌 1개의 고가(古家) 임차료로 월 3 원을 지출하고 있다. 교육비는 자녀 두 명의 학비와 학용품비 등으로 월 2 원 40 전(6.9 %)를 지출하고 있으며, 신문대금으로 월 1 원, 우편, 수도, 석유(조명용) 등의 주거관련 생활비로 월 82 전을 지출하고 있다. 또한 조부모와 부모의 술, 담배 등의 기호품 구입에 월 3 원을 지출하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의료비 등에

4) 차조는 조의 한 종류로 차진 것이 특징이다. 차조밥은 쌀이 귀한 산간지방의 주식으로 주로 이용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대비할 목적으로 준비금 월 1 원 32 전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지출내역 중 피복비 지출은 없으며, 일제에 의한 '강제저축'으로 진행되었던 학교저금과 직장의무저금으로 월 70 전을 저금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권대웅(1986)은 이 당시 일제의 저축정책은 개인들의 소규모 유휴자본을 통합하여 은행의 신용자본을 창출하는 동시에 산업자본의 효과적인 조달을 위하여 실시된 '강제저축'이라고 하였다[5].

〈표 6〉 노동자 가정예산 (단위: 원)

월수입				35.00	100%
	월급	30.00	일급 1원		
	임시특별수당	5.00			
월지출				(35.00)	
	식비	21.00	미대 18원 찬대 3원		60.00%
	신탄비(薪炭費)	1.20	벼껍데기		3.43%
	피복비(被服費)	0.00			0.00%
	주거비(住居費)	3.00	방세3원		8.57%
	기구비(器具費)	0.50			1.43%
	교육비	2.40	아동2인 학비,학용품		6.86%
	도서비	1.00	신문대		2.86%
	우편,수도,석유	0.82			2.34%
	잡비(雜費)	3.00	연초1원, 술(酒)1원, 기타 잡비1원		8.57%
	조세(租稅)	0.06			0.17%
	준비금	1.32			3.77%
	저금	0.70	학교저금20전 의무저금50전		2.00%

(출처: 김삭불, 1927)

노동자 김삭불은 독자들에게 "이상의 예산표로 보서도 얼마나 빈약한 생활을 하는지가 알기에 어렵지 안흐리다"라고 호소하며, 35 원의 월수입으로 12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한탄하고 있다.

5) 1937년 중일전쟁 이후인 1938년 5월부터 시작된 "조선국민저축조성운동"은 금융기관에 집중된 저축을 전쟁수행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 행정적 규제를 통하여 저축을 의무화 하였으며, 모든 선전매체들을 이용하여 내핍생활을 강요한 '강제저축운동'이었다(권대웅, 1986).

"지출은 수입을 넘지 말게 하라" 일즉이 카네기는 말하엿슴니다. 과연 우리가정을 빗나게 하고 향상 식히는 업지 못할 금언(金言) 이겟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다달이 매월 예산표를 정하여 름님업시 실행하는 이가 얼나나 되겟슴니가? 우리는 늘 말함니다. 규칙적으로 규모 잇는 생활을 하구 십다고. 그러나 현하 우리나라의 현상과 가정제도에 비초아 보면 일부 특수계급 뿐이 아니겟슴니다. 필자와 갓흔 직공에게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문제인가 십슴니다. 누구라 마음이야 업스리요마는 허는 수 잇슴니가. 얼마 아니 되는 월수(月收)로서 만흔 가족을 거나리는 고로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조반석죽(朝飯夕粥)을 끄리는 가긍한 정경이야 참으로 불상하지요(김삭불, 1927).

1920~30년대 도시 노동자의 출신배경은 대부분 일제의 1920~30년대 농촌수탈정책으로 인하여 유일한 생산수단인 토지로부터 유리된 농민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실업자나 미숙련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였으며[6], 농민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에 있었다.

Ⅳ. 1920~30년대 가계부 담론

1. 가계부 담론 : 식민지 통치이데올로기

1920년 창간된 동아일보에서 '가계부' 라는 단어는 1922년 9월 21일자 기사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기사는 조선총독부가 절약을 선전하기 위한 방안들 가운데 하나로 "가계부의 사용을 장려"한다는 것이었다[7]. 이는 한국가정에서 '가계부 쓰기'라는 근대적 가정회계의 도입이 한국가정 스스로의 자발적 수용과정이 아니었으며 국가권력으로부터 강제된 수용과정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6) 조선총독부의 1932년 6월 현재 실업률 조사 통계결과를 보도한 동아일보 사설은 조선의 실업문제가 일제의 식민지 수탈 결과임을 암시하고 있다. 사설은 조선내 조선인 실업률은 12.2 %로 조선내 일본인 실업률 3.6 % 보다 8.6 %가 높으며, 일본내 일본인 실업률보다 5.5 %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 내 일본인 실업률이 일본 내 일본인 실업률보다 오히려 적은 것을 볼 때 조선에 실업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오로지 조선인의 실업자 문제뿐일 것을 인식하게 한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33년 11월 8일).

7) 기사에 따르면 조선총독부는 절약방안들로 '가계부 사용' 이외에도 총 12개의 방안들을 도지사들에게 통보했다. 그 중에는 생활을 간이(簡易)하게 하고 질소(質素)를 위주로 하여 규율적으로 할 것, 조선복의 색물(色物) 사용, 금주와 금연 등을 장려한다는 등의 절약방안들이 함께 제시되었다(동아일보 1922년 9월 21일).

1.1 농촌진흥운동과 가계부

한국에서 가계부 사용의 필요성은 1930년대의 농촌진흥운동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홍보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2년 7월부터 1940년 12월까지 관제농민운동인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했다[8]. 우가키 총독은 농가경제의 재건을 일제의 식민지배체제의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로 제시했으며, 농민이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민의 '자력갱생'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제의 '자력갱생' 구호는 1920~30년대 농가경제의 몰락 원인을 호도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농가경제의 몰락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과 같은 식민지수탈정책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자력갱생'을 강조함으로써 농가경제 붕괴 원인이 식민지수탈체제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음을 세뇌시키고자 했다. 1932년 10월 7일자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농촌진흥운동에서 강조되었던 '자력갱생' 구호가 가지는 허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 '자력갱생'이니 '자력해결'이니 하는 문자가 유행한다. '자력'이란 말은 같으나 그 내용에 잇어서 양면의 날을 가진 칼과 같이 이리도 해석할 수 잇고 저리도 해석할 수 잇는 문자다. (중략) 금일의 사회현상을 정면시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조'의 학설을 전면적으로 시인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잇는 것이다. 부귀와 빈천을 구별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근면보다도 황금이나 권력의 힘으로 되는 것임은 숨기지 못할 사실이다. 이 시대에 잇어서 민중에게 '자조'의 도덕을 설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물에 대한 사회적 안목을 포기하고 일종의 자위적 허망 하에서 득불보실(得不補失)의 근로를 영위시키려는 교언에 불과하다(동아일보, 1932년 10월 7일).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에서 본격적으로 선전된 가계부 담론은 일제의 식민지수탈체제 안정화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이는 당시 경기도 촉탁이었던 김추국이 농촌진흥운동과 가정경제와의 관계, 그리고 농촌부녀자의 책임을 다룬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 빈궁에 빠저 잇는 불상한 농가를 구제해서 갱생케 하기 위하야 시작한 것이 농촌진흥 운동입니다. (중략) 그런데 이 운동은 농촌부인과는 떠러질 수 업는 관계가 잇는 것입니다. 그것은 엇재서 그러냐 하면 농촌부녀는 집안살림을 마타 하는 관계상 그 살님

8) 농촌진흥운동의 실시 배경은 (1) 1931년 조선 농촌을 공습한 쌀 공황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몰락 (2) 사회주의 농민운동의 확산에 따른 체제위기위식 (3) 일제의 만주침략에 따른 후방기지로서의 조선에 대한 확실한 통제 필요 등이었다. 일제는 당면과제로 농촌의 피폐를 해결하고 내외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각성을 통한 자력갱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권태억, 2007).

을 잘 하고 못하는데서 농가의 갱생도 잘되고 못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운동으로 해서 농촌부녀자도 자각이 만히 되여서 전자에 아니 하든 밧갓일도 만히 해서 농사에 조력도 하고 부업도 잘 들해서 수입을 엇고 또는 절미저축과 가튼 것을 실행하는 동시에 살님비를 절약해서 집안살님을 보태며 따라서 갱생계획 실행도 잘 되는 집이 만습니다. 그런 걸로 보며는 농촌부녀자는 농촌진흥운동의 보조자가 아니라 당당한 관계자라고 볼 수 잇습니다(김추국, 1940).

즉,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에서 농민의 자력갱생을 강조함으로써 가정경제의 피폐와 붕괴 원인을 체제의 문제가 아닌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고자 했다. 농촌진흥운동과정에서 보급된 가계부 담론은 가정경제에서 여성의 책임과 근검절약을 강조함으로써 일제의 식민지수탈체계를 은폐하거나 합리화하는 식민지 통치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적극 이용되었다.

1.2 전시경제와 가계부

1938년 일제는 중·일 전쟁 발발에 따른 한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 통제할 목적으로 '국가총동원법[9]'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이 시기 가계부 쓰기를 비롯한 가사합리화는 전시경제라는 '비상한 시기'를 참고 견디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의미하였다.

싸홈 때문에 물건이 많이 드니까 제반 물까가 빗사게 됩니다. 물까가 올랏다고 수입이 느는 것은 아님으로 그 전대로 쓰다가는 살림사리가 꿀림니다. 언제나 헷푸게 살림살이를 할 것은 아니지만 전쟁 중에는 가장 필요한 것은 검소하게 하고 절약할 일임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 사는 날가지 쓰다가 죽자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잇으나 그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죽지도 안코 살림살이가 꿀려서 고통만 받게 될 것입니다(이건혁, 1938a).

따라서 전시경제시기에 살림을 잘한다는 것은 소비억제와 절약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한 죄인이었다.

하여간에 살림살이가 어렵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딥시다. 고무신 안 신고도 살았지요. 양철통 없을 때도 살았지요. 화장품 없이도 살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홍청대고 물건을 쓰지 못하는 것이 죄지은 것 같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으나 이제 붙어는 안

9) '국가총동원법'은 식민지 조선을 일제의 대륙전진을 위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한 법으로, 노동력 강제동원, 강제적 물자 징발, 상품가격 통제, 조선인의 일본군 강제 징용 등이 실행되었다.

> 쓰는 것이 잘난 사람이오 국가에 충성스런 사람이오 내로라고 큰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금하는 것을 돈 좀 있다고 애써 가면서 사서 모으는 사람은 그야말로 죄인입니다(이건혁, 1938b).

전시경제시기에 유통되었던 가정회계 관련 담론은 가정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체제의 문제가 아닌 가정의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인의 문제로 협소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해결책도 부인의 가계부 쓰기와 같은 '알뜰한 살림'을 통한 절약과 소비억제가 강조되었다.

> 전시에는 국가의 경제가 모두 전쟁을 위한 것을 으뜸을 삼고 나가는 것은 서두에서도 잠간 말한 바가 잇지만 어찌했든 각각 개인의 경제, 가정의 경제도 이에 준해서 나갈 것은 물론입니다. (중략) 여기서 우리는 생활전체에 대하야 간소한 사치스럽지 안코 규모잇는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허영에 홀르기 쉬운 부인, 한 가정을 다스리는 주부의 알들한 살림이 잇어야 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전홍진, 1939).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1920~30년대 보급된 가정경제와 가계부 관련 담론들은 일제의 식민지수탈구조 때문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재생산 위기를 '절약', '자력갱생', '알뜰한 살림' 등과 같은 선전구호들을 통해서 가정과 주부의 문제로 협소화하여 대중의 체제비판의식을 희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2. 가계부 담론 : 계몽지식인의 근대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서구에서 가정의 근대적 변형은 가사에서의 기술적 합리성 적용, 가사전문성의 강조, 공사영역의 성별에 따른 분리와 주부역할의 강화, 가정의 사생활권의 강화 등이 주된 특징들이다(김혜경, 1999) 계몽지식인은 1920~30년대 한국가정을 서구가정과 같은 근대적 가정으로 변화시키고자 농가경제의 과학화, 가정경제의 합리화, 주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정담론을 적극적으로 생산, 보급하였다. 특히 근대적 가정담론을 가정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부들이 가계부 작성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가계부 작성을 위한 회계지식이 있을 것이 요구되었다. 아래에서는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이 계몽지식인의 근대적 가정담론과 결합하여 근대가정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한다.

2.1 문맹타파와 가계부

1920~30년대 한국 전체 인구의 약 80%가 문맹자인 상황에서 계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문맹타파였다. 민족주의세력은 농민야학을 통해서 민족의식배양과 문맹퇴치활동에 주력했다. 총독부도 전국 각지의 농촌진흥과를 통해서 농한기에 농민야학을 개설했다. 농민야학과 관련한 여러 신문기사들은 가계부 작성이 농민야학의 주된 교과목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 총독부 농촌진흥과에서는 이제 농한기를 이용하야 전 조선 각지에 산재한 농촌진흥회와 지도부락을 총동원시켜 대중교육에 주력하기로 되엇다 한다. (중략) 농민야학을 개설하야 일반농민에게 한글, 산술, 가계부등을 가르킨다는 것이다(동아일보, 1937년 11월 16일).

> 농촌진흥과의 추정에 의하면 전 조선 사천여 진흥회와 지도부락에서는 야학을 실시하지 안는 곳이 없고 (중략)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문맹자를 모아노코 한글과 수짜 등을 가르쳐서 최저한도를 가게부를 맨들고 볼 만한 정도로 가르치고 잇으며(동아일보, 1937년 12월 25일).

> 안성군 각 면 농촌진흥회에서는 회원에게 한글과 수자를 가라처가지고 가게부를 제손으로 적을 만하게 되도록(동아일보, 1938년 2월 22일).

> 안성군 공도면 마정리 문기라는 농촌에서는 (중략) 십사세 이상 오십세 미만의 여자를 모하 가지고 언문과 가게부 기재방법을 강습한 결과 총 호수 이십삼호 인구 백삼십인 중에서 거이 전부가 문맹을 면하게 되엇다 한다(동아일보, 1938년 4월 12일).

> 부천군에서는 갱생부락 부인에게 대하야 가게부를 자유자재로 기재헐 수 잇는 교육을 목표로 거 육일부터 삼개월간 예정으로 부인강습회를 동군 오정면 옥곡리 대촌에 개설하얏다(동아일보, 1938년 1월 20일).

> 경남 동래군 구포면에서는 소학교 야학교 방면에 취학한 일이 하번도 없는 농촌소년소녀 (십오재(十五才)부터 이십재(二十才)까지) (중략) 주소씨명은 물론 가게부를 기록하게 되어 군면당국에서는 크게 기뻐하야 마지 안는다고 한다(동아일보, 1939년 4월 5일).

> 경남거창에서는 전 군민의 칠활이상 무식한 농민을 위하야 각면 부락에다 농민도장을 건설하고 농한긔를 이용하야 십이월 일일부터 익년 삼월 말일까지 한글을 위시하야 국어, 산술, 가게부 기장등을 가라치는 데 (동아일보, 1939년 12월 12일).

농민야학과 관련한 신문기사들에서 주목할 점은, 공통적으로 1930년대 농민야학의 구체적 교육목표가 수강생들이 야학강습을 마치면 적어도 한글을 해독함은 물론 간

단한 가계부를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즉 가계부 작성 능력은 농민야학의 수강생들이 기본적인 문자와 숫자를 얼마나 습득했는가를 검증하는 '문맹타파'의 척도로 이용되었다.

2.2 농가경영과 가계부

계몽지식인은 농민이 농가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이 회계 지식이라고 생각했다. 조선농민사[10]의 초대중앙이사장이었던 김성환은 『조선농민』에 실은 글에서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리해타산(利害打算)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부를 통한 농가수지의 타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판을 노아볼 필요는 (중략) 첫재 그 일에 착수할 째에 이놈의 일을 하고 나면 일년을 통하야 얼마나한 리익을 어들 것인가를 아라야 될것이 안님니가. 논에 얼마 밧헤 얼마 양잠에서 얼마 양계에서는 얼마 과수원에서 얼마 이러케 복잡한 방면에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오. 둘재로는 우에서든 리익을 엇는 데에는 얼마나한 경비가 들어야 되는가를 몰나서는 안될 것임니다. 어떤 한가지의 일에서 만흔 수입을 엇는다 하도라도 그 수입을 엇는 데에 넘우 지나가는 경비가 드럿다거나 또 그일을 시작하기 째문에 다른 일에 조치못한 영향을 밋게 하엿다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손해가 잇슬것이니 미리 수판을 노아볼 필요가 잇는것이오. 셋재로 엇던일을 시작하든지 그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력을 생각치 아니면 안됩니다. 아모리 리익 잇는 일이라도 하고난 뒤에 노력에 대한 보수가 못된다 하먼 이것은 또한 그 대책이 업서서는 안될것이니 미리 수판을 노아볼 필요가 잇고 넷재로 1개년동안 생활에 대한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될것임니다. 가령 식구가 여섯이 잇다 하면 그 여섯식구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으로 비롯하야 그타 모든 것을 게산해보아야 될것이 아님니까. 잘먹고 잘쓰는 것은 당초부터 문데가 못되지마는 그래도 굼지나 말고 헐벗지나 말기 위하야는 만일이라도 우에서 노아본 게산에서 수입과 지출이 서로 부족을 생하는 째에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것이 안임니가 (김성환, 1926)[11].

한장경도 『조선농민』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춘경전의 예산편성과 추수기의 결산

10) 조선농민사는 1925년 10월에 천도교 인사들과 농민운동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이 모여 설립한 농민운동단체로 『조선농민』, 『농민』 등의 잡지를 발행하고 농민야학을 통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했다.

11) 김성환은 또한 같은 글에서 "수판을 노아 봐야" 노동에 대한 보수의 적절성, 과중한 공과금의 문제, 도시의 농촌 착취 상황, 상공업자의 속임수 등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새사회를 건설해야겠다"는 깨달음과 "상대되는 계급과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계급의식을 갖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농민은 "수판 드는데서 과학이 발달되고 사상이 건전해질 것이오 힘잇는 투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환, 1926).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조선농민들이 수판에 어두운 것”은 마치 “조흔세상이 언제나 잇을가 금년에나 잇을가 명년에나 잇을가” 하는 희망을 “공중에 부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하였다(한장경, 1929). 신문에서도 일련의 특집기사들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농가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2]. 다음 기사는 가정경제의 몰락 원인을 귀신 탓으로 돌려서 무속 굿을 하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농민의 회계지식이 부족한 것이 농가수지개선의 큰 장애물임을 지적하고 있다.

> 광주군 연호면의 어떤 농가는 아무리 살랴고 근검절약을 하나 생활은 날이 가고 해가 갈스록 점점 파멸 되어가니 반드시 귀마(鬼魔)의 작희라 하야 최후방책으로 도신(禱神) 굿을 하엿다 한다. 그들은 수지를 타산(打算)할 줄 모르고 운명과 신에게 전부를 맷긴다. (중략) 이와가치 농가는 타산이 업다. 타산이 업는 곳에 무슨 학식이 잇스랴. 농가여 그대들의 숫자를 계산해보고 그 유래와 원인을 살피라(동아일보, 1932년 8월 1일).

2.3 가사와 가계부

20세기 초반 서구에서는 가사의 과학화가 강조되었으며, 이는 1920~30년대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 과학! 그것을 반듯이 우리들의 살림살이에까지 이끄러다 부치지 안으면 안될 것임에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잇서 관심조차 갖지 안는 것은 크게 한심한 일입니다. (중략) 녀성과 과학! 이것은 지금에 잇서 아모 것보다도 긴절한 문제로 가정의 주부된 이는 물론이요 기타 아모런 사람이라도 한 상식적으로 이 과학이라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그 시대의 진전과 아울너 발맛춰 나가지 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신여성, 1932).

가사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해서 가계부 쓰기, 근검절약과 저축, 부업의 개량, 식모사용 자제, 합리적 소비와 같은 방안들이 강조되었다. 특히, 가계부는 “주부의 가정관리라는 것이 단 이상에서 머물지 안코 경제적으로 합리화한 생활방편을”을 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내 집 살림의 매달 생활비가 쌀, 간장, 나무, 찬거리, 무엇 무엇 용돈이 얼마 든다는 것을 명료하게 아는 이가 적은 것은 첫재 우리 가정에서 가계부를 쓰지 안은 까닭”이라고 하였다(김영애, 1935). 따라서 “주부된 이는 반드시 가계부를 작성하야 예산한 바를 적당하게 각각 종목을 배정하야 그 달에 일정한 수

12) 동아일보는 1932년 2월 17일부터 1932년 3월 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농업경영 농민의 자각을 촉함”이라는 제목으로 회계지식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농가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들을 연재하였다,

입 지출을 예산하야 실행하되 날마다 지출된 것은 당일로 기입하얏다가 월말에 가서 수입과 지출을 각각 합계를 내여 결산을 보고 일년을 한 후에는 년말에 가서 계산해 보면 일 개월 평균 우리 생활비가 얼마나 되엿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문인순, 1935).

원현숙은 동아일보에 총 5회에 걸쳐서 가계부기의 구체적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가계부긔(家計簿記)를 게을리 하지 말고 매일 긴장하야 그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야 놉니다. 즉 "일긔장" (이것은 매일 현금의 출납을 기입하야 저녁마다 장부상 잔고와 수중 현금을 대조할 일) "원장"(이것은 타인과 대차관계가 생길 적마다 기록함) "재산목록" 등은 사실이 생길 적마다 긔록하고 월말에는 "월말결산표"(월말마다 그 달의 수입과 지출의 합계를 과목별로 긔입하고 또한 과목별로 총액에 대한 % 등을 산출하야 그 달의 수지를 일람하게 하는 동시에 그 달의 예산과 결산과를 대조하야 그 다음 달의 예산편성에 당하야 참고가 되도록 함) 년말에는 "년말결산표"(각 월의 월말결산표를 합계하야 일 년의 총수를 산출하고 또 이것을 열둘로 제하야 매월 평균 "표준결산표"를 작성할 일 이것은 매월 그 달의 예산편성에 제하야 상상의 표준이 됨)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합니다(원현숙, 1931a).

원현숙은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번잡한 일이라고 비난" 할지도 모르겠지만, 가계부 작성을 통하여 "가계통일이든지 또는 예산생활"을 알 수 있으며, "물가의 변동, 재산의 증감, 가계의 소장(消長), 가정관리자의 지식의 천박" 등도 알 수 있고 "가정일긔와 더부러 자가(自家)의 력사를 알 수 있다"며 가계부 작성의 장점들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원현숙, 1931b).

2.4 주부와 가계부

계몽지식인은 1920~30년대 한국주부의 가정경제에 대한 관리능력이 서구주부와 비교하여 많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이구영(1925)은 "조선부인은 서구부인들에 비교하여 시간과 노력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랴하는 생각이 결핍"되어 있으며, "주면 먹고 잇스면 쓰고 업스면 쓋고 이가튼 무지하고 소견없는 짓을 함이 부인의 일이라면 조선의 장래도 보잘것 업시 멸렬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계몽지식인은 한국의 전근대적 가정을 근대가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대적 주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근대적 주부란 전근대적 주부처럼 "바느질이나 소제를 잘하여 이것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면 그만인 주부에서 그쳐서는 안되며"(김영애, 1935), 가정경제의 운용권한을

갖고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정경영을 할 수 있는 주부를 의미했다.

> 가정의 경제는 주부의 손에 잇습니다. 이즉도 우리들 중에는 가정경제를 전연히 남편이 잡고 잇는 집도 만흐나 그는 원리원즉이 아니입니다. 맛당히 현대식 가정제도에서는 가정경제는 주부의 손에 맷기여져야 합니다(김선비, 1931년).

계몽지식인은 가정회계를 이용한 가정경제의 관리는 근대적 주부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으며, 가계부 작성은 근대주부의 '징표'가 되었다.

> 가계 즉 가사회계를 한 가정에서는 식구가 몃 사람이든지 한 기관으로 통일합니다. 다시 말슴하오면 한 가정에서 주인이나 주부나 장남이나 기타 가족이 다 각기 생산과 소비를 한다 할지라도 회계만은 한 기관으로 통일하고 주부가 이에 대한 전책임자가 되고 잇습니다. 즉 수입되는 것은 한번은 반드시 주부의 수중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 가족이 각기 지출할 것이 잇다 할지라도(례하면 얼마 안 되는 잡비라도) 이것은 주부의 승낙을 어든 연후에 지출하고는 반듯이 그 결과를(금액, 용도, 잔액 등) 주부에게 보고하야 그사이에 일 푼의 착오라도 업도록 합니다(원현숙, 1931).

가계부는 또한 서구주부와 비교해 볼 때 경제관념이 부족한 한국주부들의 잘못된 소비습관이나 구매방식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아래 기사는 외상구매나 하인 등을 통한 한국주부들의 소비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며,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가계부 쓰기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 조선부인들도 물건 살 때에는 여러 가지로 싸게 사고 십지만 대개는 좀 넉넉히 사는 이는 의례히 하인이나 행랑어멈 그러치 안흐면 달은 사람을 시켜 사게 되는 까닭에 물건도 잘 고르지 못할 뿐 아니라 흔이 무책임하게 갑을 비싸게 주고 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물건을 사러 장에나 가개에 나아가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넷날의 소위 점잔타는 풍습이 그대로 남어 잇어서 남에게 의탁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웃으운 일입니다. 그러나 타국 녀자들은 금전상에는 인색하다 할 만큼 존절히 하야 쓸데 업는 물건은 도모지 사는 법이 업고 또한 물건 알어 보는 감식안이 놉하서 물건호부를 엄밀히 선택하게 된다 합니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선생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오 가뎡에서 어려슬때부터 미리 배우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다 현금으로 물건을 사게 되는 까닭에 물건을 마음대로 골를 수도 잇고 또는 갑을 깍글 수 잇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현금으로 사지 안코 외상으로 들여오거나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히 비싼 갑으로 사게 될 뿐 아니라 현금을 주지 안코 사는 만큼 돈 앗가운 생각이 적어서 사지 안허도 관계업슬 물건까지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맨들어 노코 다만 한푼 돈이라도

쓰면 반듯이 긔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가뎡에서는 가계부가 잇는 집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한달 찬갑으로 얼마시량갑으로 얼마 이러케 예산하고 예산 안에서 돈을 쓰게 되는 까닭에 나종에 예산초과로 애를 쓰는 일이 비교뎍 적다합니다 (동아일보, 1928년 8월 10일).

계몽지식인은 근대가정에서 "주부가 선장이면 예산은 나침반인 동시에 키가 되고 가계부는 항해일지"라고 생각했다[13] 그리고 근대가정에서 주부가 남편에게서 신뢰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경제와 관련해서 주부에게 부여된 회계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여겼다. 근대적 주부가 회계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첫 단추는 남편이 밖에서 벌어온 과실을 가정에서 사려있게 지출하고 가계부 작성을 통하여 가정경제를 잘 통제하는 근대적 주부가 되는 것이었다.

2.5 근대적 가정질서와 가계부

1920~30년대 한국의 계몽지식인은 근대적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근대적 가정질서를 근대적 가정질서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생각한 근대적 가정질서란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의 구분에 따른 가정 내 성역할의 구분과 가사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근대적 가정질서의 성립에 있어서 유용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가계부라고 생각했다.

근대적 가정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 남편과 부인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계몽지식인은 전근대적 가정에서는 남편 혹은 호주가 가정경제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면, 근대적 가정은 남편이 가정의 수입을 책임지고 부인은 남편이 벌어온 부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성역할에 따른 가정에서의 노동분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넷날부터 가장 즉 호주의 절대의 경제적 지배권은 주부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리해력을 자연 말살시켜 한 가정의 가계정리(家計整理)도 못하는 불구의 가정을 맨드럿슴니다. 오랜 세월을 이가티 지낸 관게인지 지금에 잇서서도 중류이상의 상당한 가정에 잇서서도 푼푼이 그 가장에게서 타서 생활하여 가는 웃으운 살림을 하는 가정이 만슴니다. 이러한 살림은 하로밧비 고쳐야 할 것임니다. 왜 그런고 하면 경제적 리의과 편리가 잇슴은 물롬이어니와 주부의 권리를 찻는 점에서입니다(림해, 1930).

계몽지식인은 부인의 가정에서의 지위도 전근대적 가정과 근대적 가정이 차이가

13) 동아일보는 "아모리 어려운 살림에도 유리한 가계부 작성법"이라는 제목으로 총 세 번에 걸쳐서 가계부 작성법을 소개하였다(동아일보, 1937년 6월 24, 25, 26일).

있다고 생각했다. 전근대적 가정에서 부인은 “남편이 밖에서 벌어온 돈을 쓰기만 하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근대적 가정에서 가정경제를 관리하는 부인은 “돈을 버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돈을 되도록 묘하게 잘 쓰는 것은 그보다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일하는 부인의 노동에 대해 상당한 보수(報酬)로 월급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훌륭한 직업으로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송화자, 1925). 심지어 근대적 가정에서 주부는 가정경제가 어려우면 남편의 용돈도 통제할 수 있는 ‘권위’도 가질 수 있어야 했다.

> 누구든지 돈이 부족하게 되면 먼저 예산을 감하는 것이 보통인데 (중략) 어떤 것을 절약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때에는 의복비, 화장비, 남편 되시는 이의 교제비를 사정없이 절약하도록 하십시오(송금선, 1932).

> 회사에서 회사시간이 되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차먹을 생각 한잔 마실 생각 저녁은 보통 먹고서 집에 도라갈 생각이나 하는 가장의 용돈자리는 훨신 커집니다. 뎨파트에 나간 김에 눈에 띠우는 대로 이것 저것 사서 들고 돌아오는 주부가 잇다고 놀래고 잇을 동안에 가장은 가장대로 거이 날마다 밖에서 저녁을 사먹고 다니는 이가 잇습니다. 이러케 쓰는 돈을 우리 가게부에 가장의 저녁값 얼마라고 적어 넛는 집은 없습니다, 가장의 용돈도 통제하야 통제를 받으며 쓰서야 한다구 충고합니다(동아일보, 1940년 2월 9일).

계몽지식인은 근대적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사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근대적 가정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같은 가정의 최고 연장자 혹은 가장이 가사와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계몽지식인은 근대적 가정에서는 부인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포함한 가정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가정경제에 대한 예산편성과정을 통해서 근대적 가정질서를 위한 민주주의적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 가뎡경제를 엇더케 유지할가? 국가의 일년 정치를 예산정치로 하는 것과 가치 가뎡도 일년 경제를 예산을 세워야 하겟습니다. 먼저 정월에 일가족의 수입을 호주가 예산표로 꾸밀 것입니다. 각 식구의 예산을 정세히 꾸며가지고 전 가족이 모여서 예산회의를 여러야 겠습니다. 물론 이 의회에는 남자호주가 의댱이 되고 녀자가 의원이 되고 어린 아해는 대의사보가 되고 정 어린아해는 방텽만 허락하고 회의를 계속하야 각자 자유로운 의사를 표시하야 호주의 예산표를 부결할 것은 부결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하여 예산을 통과한 후의 일 년간 대톄의 재정방침을 세우고 또 달마다 매월 그달의 예산회의를 열어서 생활 뎡도에 따라 몇 원이상은 그 예산회의에 통과하지 아느면 못 쓰게 합니다.

> 그러케 예산을 세운 후 금전과 가계부는 여자가 마타 회계하고 모든 외교는 남자가 부담하야 한푼 지출이라도 그 가계부에 자세히 서서 일푼 일리의 남용이 업게 하여야 합니다(목묘생, 1924)

그리고 가정의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전체 가족 구성원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가정 구성원의 권리이자 근대적 가정질서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한 가뎡의 경제에 대하야는 모든 사람 즉 가족 전톄에게 알려둘 필요가 잇슴니다. 엇던 집에 례에 의하면 가댱은 가댱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딸은 딸대로 서로 서로 숨겨 가면서 씀니다. 얼마나 조치 못한 일 임잇가. 그리다가 그 가댱이 급한 병으로 죽는다 하던지 또는 그 어머니가 죽는다든지 하면 그 가뎡의 모든 질서는 일조일석에 찌부러집니다. 이러한 모든 폐단을 업시하기 위하야 집안 전 가족이 알어둘 필요가 잇스며 권리가 잇슴니다(우태형, 1927).

1920~30년대 가계부와 관련한 계몽주의 담론은 '문맹타파', '농가경영의 합리화', '가사의 과학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담론은 계몽지식인의 근대가정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산, 유통되었다. 그리고 계몽지식인은 가정회계와 가계부를 근대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주체인 근대적 주부와 근대적 가정질서를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했었다.

Ⅳ. 결론 및 연구과제

본 연구는 1920~30년대 일본제국주의와 계몽지식인이 생산, 유통한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을 분석하여, 이 담론이 한국가정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선 1920~30년대 농민과 노동자의 가정경제상황을 살펴보았다. 대다수 농민가정은 가정의 기본적인 유지와 재생산이 힘든 심각한 적자상태에 있었다. 이는 소작농은 물론이고 자소작농과 자작농까지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자가정의 경제상황도 농민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조선인 노동자 대부분은 실업 혹은 반실업상태에 있는 미숙련 일용직 노동자였다. 이들의 임금수준은 일본인, 중국인 노동자와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죽음 반, 삶 반으로 근근이 생명을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1920~30년대 농민과 노동자 가정의 몰락을 가져온 주된

원인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과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 등으로 대표되는 일제의 식민지수탈정책이었으며, 1930년대 초의 경제공황은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은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유통되었다. 일제는 '자력갱생'의 구호 아래 가정경제 파탄의 책임을 가정으로 돌리고 일제의 식민지 수탈을 은폐하거나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제로 가계부 관련 담론을 이용했다. 1938년 중일전쟁으로 촉발한 전시경제시기에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은 가정에서의 내핍생활을 강조함으로서 전쟁자금 축적과 대중의 체제비판 의식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계몽지식인은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을 문맹타파, 농가경영의 합리화, 그리고 한국가정을 근대적 가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몽적 의도에서 생산, 보급하였다. 농민야학에서는 "가계부를 맨들고 볼만한 정도"가 문맹타파 여부의 기준으로 인식하였으며, 농가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농민이 회계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국가정을 서구가정과 같은 근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사의 과학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대적 주부'와 가정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근대적 가정질서'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계몽지식인은 가정회계와 가계부가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정 내 민주주의적 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1920~30년대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은 일제의 식민지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통치이데올로기의 기제로 이용된 동시에 근대적 가정을 만들기 위한 지식인의 계몽적 열망이 중첩된 것이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정회계와 가계부와 관련한 담론이 1920~30년대 한국의 근대가정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본 데 있다. 또한 역사학을 비롯한 인문사회분야에서 이루어진 일상생활 관련 연구 성과들을 적극 흡수하여, 그 동안 국내 회계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회계와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모색 했다는 데 연구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20~30년대 가정회계와 가계부와 관련 담론 분석에 한정되어 있으며, 당대에 한국가정에서 가계부 쓰기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문헌조사, 사례연구 등을 통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또한 가계부 관련 담론을 받아들이는 수용주체의 계층별 차이에 따라서 담론의 실제 적용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론수용주체의 계층별 차이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본 연구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보기를 들어, 1920~30년대 대다수 노동자, 농민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가계부 담론의 실제적 수용주체는 상류계층이나 중상류계층에 속하는 가정에만 국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1920~30년대 가계부 관련 담론이 실제로 한국 가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담론수용주체의 계층별 차이에 따른 차별성이 있는가이다. 그리고 1920~30년대의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이 1970년대의 '가계부 쓰기 운동'과는 어떠한 공통성과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1970년대 '가계부 쓰기 운동'은 국가권력의 내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운동'과 결합하여 급속하게 한국가정에 전파되었으며, '가계부 무료 배포', '알뜰한 주부상 시상', '가계지출모형 개발', '가계부 작성 강좌 개설' 등이 1970년대 '가계부 쓰기 운동'의 대표적 사례들이다. 1920~30년대 가정회계와 가계부 관련 담론이 1970년대라는 시, 공간적 배경에서 어떻게 '재현'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강만길, 1987,「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과비평사.
권대웅, 1986, “일제말기 조선저축운동의 실체”,「민족문화논총」, 7권, 51-84.
권태억, 2007, “1920 · 193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론”,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Ⅲ」,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편.
김삭불, 1927, “나의 가정 일개월 예산”, 동아일보, 1927년 7월 2일.
김선비, 1931, “불경기와 주부”,「신여성」, 제 5권, 10호, 62-63.
김성환, 1926, “밧갈기젼에 수판부터 노아보자!”,「조선농민」, 제 2권, 4월호 2-8.
김영애, 1935, “가정으로부터 출발할 우리의 신생활운동 일(一).” 동아일보 1935년 1월 2일.
김추국, 1940, “농촌진흥운동과 농촌부인의 힘”,「자력갱생휘보」, 통권 56호 부록.
김혜경, 1999. “가사노동담론과 한국근대가족: 1920, 30년대를 중심으로”,「한국여성학」, 제 15권, 1호 153-184.
동아일보 1922년 9월 21일, “총독부의 절약선전.”
동아일보 1927년 2월 2일, “고리대금.”
동아일보 1928년 5월 6일, “불공평한 임금제도로 육백노동자 실직.”
동아일보 1928년 8월 10일 “가뎡주부들의 주의할 용ㅅ돈.”
동아일보 1929년 12월 15일, “대금업자의 격증.”
동아일보 1931년 3월 10일, “농업공황과 그 장래.”
동아일보 1932년 8월 1일, “농가에 수지를 개선하라.”
동아일보 1932년 10월 7일, “자력이란 무엇이냐.”
동아일보 1932년 11월 27일, “농산수입은 가계비보다 일할이분여가 부족.”
동아일보 1933년 5월 13일, “수입보다 지출이 초과 부채생활에 우는 농민.”
동아일보 1933년 11월 8일, “조선의 실업자 문제.”
동아일보, 1937년 6월 24일, “아모리 어려운 살림에도 유리한 가계부 작성법 일(一).”
동아일보, 1937년 6월 25일, “아모리 어려운 살림에도 유리한 가계부 작성법 이(二).”
동아일보, 1937년 6월 26일, “아모리 어려운 살림에도 유리한 가계부 작성법 완(完).”
동아일보, 1937년 11월 16일, “문맹의 타파 농한기에 제(除)하야.”
동아일보, 1937년 12월 25일, “농한기의 계몽운동.”
동아일보 1938년 1월 20일, “소사부인강습.”
동아일보 1938년 2월 22일, “농한기에 성인교육, 백칠십 야학에 삼천여명 수강.”
동아일보 1938년 4월 12일, “문기농촌에 부인야학 성황.”

동아일보 1939년 4월 5일, “넉달 동안 가갸거겨 삼백아동을 계몽.”
동아일보 1939년 12월 12일, “농한기를 이용하야 문맹토치에 전력.”
동아일보 1940년 2월 9일, “내가 만일 가계부라면 주부의 사랑을 못받는 가계부의 불평下.”
림해, 1930, “가게 정리는 어더케할가 일(一)”, 동아일보, 1930년 11월 6일.
마르크스, 칼. 2001,「자본론 Ⅰ」,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목묘생, 1924, “결혼과 가정문제”, 동아일보, 1924년 1월 2일.
문인순, 1935, “가정으로부터 출발할 우리의 신생활운동 일(一)”, 동아일보, 1935년 1월 2일. 신용하, 1977, “일제하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일고찰”,「한국근대사론Ⅰ」, 지식산업사.
송금선, 1932, “주부와 가계부”,「신여성」, 제 6권, 10호 64-65.
송화자, 1925, “안해에게 월급을 주라”「신여성」제 3권, 1호 82-85.
신여성, 1932, “여자와 과학”, 제 6권, 11호 1.
우태형, 1927, “나의 가뎡 자랑거리”, 동아일보, 1927년 4월 27일.
원현숙, 1931a, “날마다 계속하야 가게부를 정리 일(一)”, 동아일보, 1931년 3월 3일.
_____, 1931b, “날마다 계속하야 가게부를 정리 이(二)”, 동아일보, 1931년 3월 4일.
이건혁, 1938a, “장기전과 가정경제”,「여성」, 제 3권, 1월호 96-97.
_____, 1938b, “물자통제와 생활대책”,「여성」, 제 3권, 10월호 44-45.
이구영, 1925, “가정생활개조와 그 실재”,「신여성」, 제 3권, 1호 32-35.
이성환, 1923, “농촌문제해결책 일”, 동아일보 1923년 11월 28일.
이여성 · 김세용, 1934a,「수자조선연구」. 제1집, 세광사.
_____, 1934b,「수자조선연구」. 제2집, 세광사.
_____, 1934c,「수자조선연구」. 제4집, 세광사.
전홍진, 1939, “물가고와 가정경제 완(完) 물가고와 주부의 각오”, 동아일보, 1939년 2월 3일,
지수걸, 1984, “1932~35년간의 조선농촌진흥운동”,「한국사연구」. 제46호, 117-149.
하버마스, 위르겐. 2006,「의사소통행위이론 2」, 장춘익 옮김. 나남.
한장경 1929, “추수와 결산”,「조선농민」, 제 5권, 6호 2-5.
Carnegie, G. D., & Walker, S. P. 2007, “Household accounting in Australia: A microhistorical study.”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20(2), 210-236.
Hopwood, A. G. 1994. “Accounting and everyday life: An introduction.”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19(3), 299-301.
Komori, N., & Humphrey, C. 2000. “From an envelope to a dream note and a

computer. The award-winning experiences of post-war Japanese household accounting practices."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13(4), 450-474.

Northcott, D., & Doolin, B. (2000). Home accountants: Exploring their practices.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13(4), 475-501.

Piorkowsky, M. 2000. "Household accounting in germany-some statistical evidence and the development of new systems."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13(4), 518-534.

Vogler, C., & Pahl, J. 1994. "Money, power and inequality within marriage." *The Sociological Review*, 42(2), 263-288.

Walker, S. P. 1998. "How to secure your husband's esteem. Accounting and private patriarchy in the british middle class household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23(5), 485-514.

Discourse regarding home accounting and household accounting book of the 1920~1930s

Hyung-Sung Han*

Abstractct

This study analyzes household-related discourse of the 1920~1930s and how the discourse affected korean households. The household-related discourse produced and distributed by Japanese imperialism and enlightened intellectuals did dual roles. Japanese imperialism took advantage of household-related discourse as the ideological mechanism to conceal or rationalize its colonial exploitation. The discourse made korean people thought of home economic difficulties as a problem of individual families. Also, household-related discourse was used for enlightening purposes such as literacy, the rationalization of farm management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korean home. The ability to write household accounting book was assumed as a indicator of literacy and accounting knowledge for the rationalization of farm management was emphasized. Enlightened intellectuals claimed the scientific home management by using household accounting book and thought home accounting as a useful means for creating a modernized housewife and modernized home. In conclusion, the household-related discourse of the 1920-30s were the ideological mechanism for the maintenance of Japanese imperialism's colonial exploitation system and were enlightened intellectuals' aspirations to create a modern home.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how household-related discourse affected korean household in 1920~30s. In addition, this study attempts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association between accounting and everyday life.

〈Key Words〉 1920~30s, home accounting, household accounting book, everyday life, modernized home, modernized housewife, discourse for modernization

* Assistant Professor of Chung-Ang University, han176411@cau.ac.kr